

“미래 세대에 온전히”...순천시 국가유산 원형 보존 박차

138억원 투입 75건 정비 추진
선암사·순천향교 등 보존·보수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망 구축
市 “장마철 이전 공정 완료 목표”

순천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문화유산 보수정비·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국가유산 보수정비 분야에 총 138억원을 투입해 국가유산 보수정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통사찰 정비,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총 75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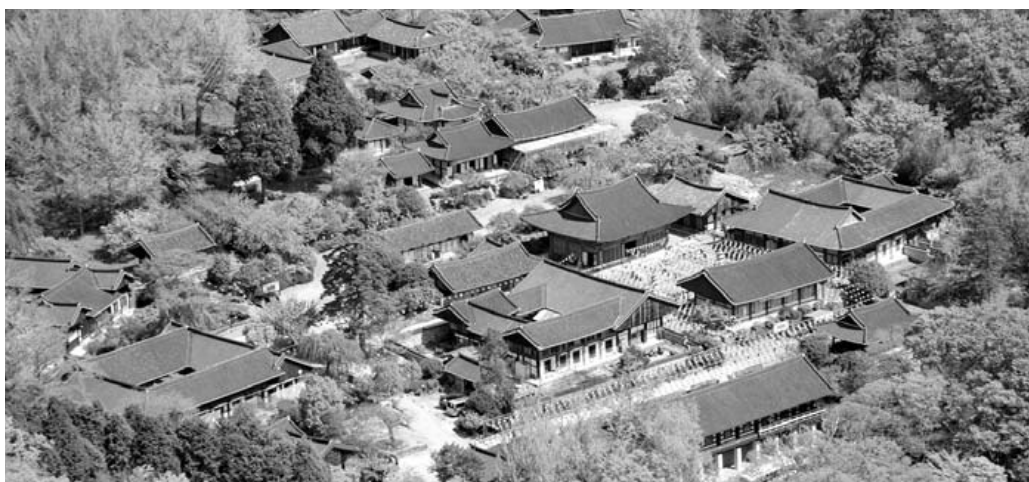
는 이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관광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유산인 송광사와 선암사의 보존 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가 중심을 이룬다.

송광사 탐방로 정비 설계용역을 비롯해 선암사 개방형 수장고 건립 기본계획 수립, 승선교 보존처리 등이 추진되며 순천향교 동재의 해체 보수도 함께 진행돼 원형 복원에 주력한다.

시는 현재 사업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설계 승인과 계약심사 등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별 선금금 지급과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추가 보수가 필요한 현장에



순천시가 지역 내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총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진은 순천 선암사 전경. <순천시 제공>

재투입해 예산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행정’도 강화한다.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등 주요 목조문화유산

을 대상으로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경비원 상시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수와 방염포배부 등 선제적 안전관리 사업도 병행해 화재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현재 선암사 관리소와 송광사 천자암 요사채, 동화사 일주문 등 일부 건립 사업은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시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정을 장마철 집중호우 시작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대를 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안전관리는 시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핵심 과제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11일 4천200여급 실습함 ‘바다로함’이 여수 신항을 출발해 일본 원양항해를 위한 환송식을 진행했다. <해양경찰교육원 제공>

해양경찰교육원, 개원 첫 日 원양항해 ‘대장정’

109명 해상보안대학교 등 방문
정보교류·특강·합정 공개행사도

해양경찰교육원이 개원 이래 첫 일본 원양항해 실습에 나서며 동북아 해양 치안 협력 강화와 글로벌 해양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12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4천200급 실습함 ‘바다로함’이 전날 여수 신항을 출발해 11일간의 일본 원양항해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실습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안보 이슈 속에서 양국의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

하고 협력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실습단은 교육생 51명과 승조원, 지원 요원 등 총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 구레와 히로시마에 위치한 해상보안대학교와 제2연구해상보안부 등을 방문한다.

특히 4박5일간의 일본 해상보안대학교와 정보교류, 특별강의, 합정 공개행사 등 교류 활동을 펼치며 양국 미래 인재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방문 중 현지 한인회를 초청해 바다로함 공개행사를 열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우수한 전문성을 홍보하는 등 민간 외교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항해는 2012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14번째를 맞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의 국제 항해 능력을 배양하는 핵심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해양경찰교육원 국제교육훈련센터장은 “교육생 등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원양항해는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유류 절감 노력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군, 콩 특화작목 육성 농가 소득 견인

생산보상금 3억여원 지급

화순군은 지역특화작목인 콩 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농가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 3억2천만원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 이용 다양화를 통해 농가 실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협과 수매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수매에 참여한 농가다.

보상금은 콩 식재 이행점검이 완료된 농지 면적에 대해 ha당 최대 100만원, 수매량 기준으로는 kg당 500원을 산정해 지급을 마쳤다.

군은 그동안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와 공동방제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 기반을 꾸준히 넓히며, 그 결과 지역 내 콩 재배면적은 2022년 47ha에서 2025년 407ha로 4년 만에 약 8배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콩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생분해성 자재와 방제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새마을회, 알루미늄 캔 재활용 ‘탄소중립’ 선도

장흥군새마을회가 버려지는 알루미늄 캔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순환의 선순환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12일 장흥군새마을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농가와 경로당 등에서 사용된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는 ‘에코프렌즈 자원순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100kg 이상의 알루미늄 캔을 직접 수거했다.

수거된 자원은 트랙터를 활용해 압축 작업을 진행,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포스코엠텍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회는 지난달 포스코엠텍과 ‘자원

재활용 협약’을 맺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수거된 캔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탄소저감 철강 원료로 활용되며, 발생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 나눔기금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갖췄다.

장흥군새마을회 관계자는 “버려지는 자원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지속해 지역 내 ESG 실천 문화를 확산 시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고흥물 ‘가공할 만한 특가’ 기획전 운영

郡, 21일까지 최대 50% 할인

고흥군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을 연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이 13일부터 21일까지 가공식품 특별 기획전인 ‘가공할 만한 특가’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고흥의 풍부한 원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업체들의 온라인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기획전에서는 숯불생선구이, 꼬막장, 말린 무화과, 건비트, 올리브 유아음료 등 고흥을 대표하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형 수산물부터 건장 간식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고흥물은 그동안 제철 상품과 선물 세트 등 주제별 기획전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군은 앞으로도 가공업체의 온라인 입점 지원과 공격적 마케팅을 지속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가공업체에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흥의 맛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흥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군, 사회적 고립 예방 ‘고독사 위험군’ 조사

7월24일까지 1인가구 691명 대상
위험별 맞춤 서비스·AI 안부 살핌

담양군이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7월24일까지 1인가구 69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2026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위기 대응 조치로 고독사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뒀다.

조사 대상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고독사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27종의 정보 중 1종 이상에 해당하는 1인가구다.

군은 다수의 위기 정보가 발견된 가구를 중심으로 가호호 방문해 생활 상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주거·건강·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연계한다.

또한 지능형 안심 플러그, 인공지능(AI) 안부 살핌, 건강유료 배달 등 디지털 기술과 민관 협력 복지를 결합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일회성 조사를 넘어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체계적으로 돌보겠다는 구상이다.

정선미 주민복지과장은 “고독사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인 만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두터운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군, 별교파크골프장 스포츠 관광 거점 도약

9천91㎡ 규모...오는 9월 정식 개장

보성군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새로운 파크골프 명소 조성에 나선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별교읍 장양리 별교생태공원 일원에 들어선 ‘별교파크골프장’이 지난 9월 임시 개장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 총사업비 3억원이 투입된 해당 골프장은 9천91㎡ 부지에 18홀 규모의 경기장과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두루 갖춘 생활체육 시설이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을 살린 다채로운 코스 구현해 파크골프만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임시 개장 기간에는 보성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 1일 30명(10명) 규모로 운영된다.

군은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설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정식 개장할 방침이다.



골프장 인근에는 태백산맥 문화관과 세계자연유산인 ‘별교갯벌’이 인접해 있어 체육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서 시너지가 기대되며, 군은 향후 전국 대회 유치로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별교파크골프장이 군민의 건강한 쉼터를 넘어 전국 동호인들이 찾는 스포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